

### 옥중서신 3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같이 전도해야 한다.

- 1) 아플 때 우리 식구가 해봐서 좋았다. 경험이야기. → 설득력이 있다. 내가 구원 받은 이야기.
- 2) 방법 - 대도시 - 전도의 방향. 효과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 Loma Linda 교회의 할일 - 각지에서 오는 학생들 잘 가르켜서 되돌려 보내는 것. 요즘 가장유망한 직종 - 치과의사. 힘을 세워서 어디로 분출해야 한다. - 선버나디노. 파산된 시. 십자가를 지는 장소. 로마린다 - 한국인 아이 교육. 특별한 사역.

연구 범위: 빌 1:5-11 → 기쁨의 시작

빌립보서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찬 서신으로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 '기뻐한다' 8 회, '기쁨'이라는 말은 5 회나 나온다. 그래서 본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자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sup>5</sup>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sup>6</sup>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sup>7</sup>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sup>8</sup>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sup>9</sup>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sup>10</sup>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sup>11</sup>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본문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질문들

1. 우리 속에 착한 일은 시작하신 이는 누구인가? 하나님 - 고난에 처음부터 동참하셨다. 완성할 것까지 보증하셨다.
2. 그 착한 일은 무엇인가? A good work ἔργον ἀγαθόν  
롬 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히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10:1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3. 착한 일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히 12:2 공동번역]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 내시고 지금은 하느님의 옥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4. 바울은 이와같은 착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안에서 성취된다는 생각에 확신이 있었는가?

롬 8:37-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sup>38</sup>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sup>39</sup>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5. 바울이 첫날부터라고 말함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5 절)? 잊을 수 없는 경험.

빌 1:5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행적 214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칠흠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했던 핍박을 생각해 보았고 그가 한때 멸시하였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다른 죄수들은 놀라움으로 더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 소리와 저주와 욕지거리가 밤의 적막을 깨뜨리는 것에는 익숙하였으나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에 결코 들어 본 적이 없었다. 파수병들과 죄수들은 기이히 여기면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하고 자문하였다.

6. 빌 1:7의 말씀을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써 보라.

(빌 1:7 공동번역)

여러분은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입증할 때에 나와 함께 은총을 나누어 받으며 고생을 같이 해온 사람들로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빌 1:7 현대인의 성경)

내가 갇혔을 때나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증거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생해 온 여러분을 내가 늘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감옥에 수감되던 또는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든 변치않고 한결하고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문해 보게하는 성경절입니다. 이런 경험을 같이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이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 고생하는 순간에 같이 있었던 경험 - bonding. 기쁠 때 더욱 기쁘다.

7.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뻐해야 하는가?

빌 1: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성취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는데. 죽음의 순간에 기억하라.

8. 바울이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을 알수 있는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라.

빌 1: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9.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요약해보라

<sup>9</sup> And this I pray, that your love may abound still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 <sup>10</sup> that you may approve the things that are excellent, that you may be sincere and without offense till the day of Christ, <sup>11</sup> being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which are by Jesus Christ,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10. 나는 남을 위하여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하는가 자문해 보라.

11.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이 절들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음주 독서 요청: 빌 1장.

간단한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공부가 쉬워지고 풍성해 질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와주시기를 바랍니다.